

코퍼스 기반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의 통사·의미적 공기 양상 및 화용적 기제 연구

이 슬 기*

<目次>

- | | |
|---|---------------------------|
| I. 서론 | IV. 존재문 선택의 인지-화용
매커니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의
통사·의미적 특징 대조 | |

<중문초록>

本研究以汉语存现句三项体系(“有”、“是”、“V着”)为研究对象, 通过对 BCC语料库中4,500条数据的精密分析, 探讨其语用分工实态, 并从认知语用学角度进行了模型化研究。分析结果显示, 各句式均形成了精密的认知语用系统, 其主语和宾语的选择由动词的语义限制连锁决定。

“有”句式通过范围型扫描报告空间内实体的存在, 充当“导入模型”; “是”句式用于确定特定坐标的身份, 充当“识别模型”; “V着”句式则捕捉物体在物理表面上的安置状态, 充当“描写模型”。特别是“V着”句式通过将抽象状态视觉化的“静态动态性”, 投射主观视角, 占据了独特的语用领域。总之, 汉语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비평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存現句의 선택은說話者認知掃描方式與話語策略의必然結果。本研究通過大規模數據证明了以往依賴直覺解釋的存現句差異，並提出了教育指導方針，具有重要意義。

I. 서론

중국어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s)은 특정 공간 내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存現)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문장 형식이다. 이는 화자의 관점과 담화 목적에 따라 ‘有’, ‘是’, ‘V着’이라는 세 가지 통사적 층위로 분화되며, 이를 ‘존재문 삼항 체계(Existential Triad)’라 일컫는다. 이 중 ‘V着’ 존재문은 동사(V)의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와 동태조사 ‘着’의 지속 자질이 결합하여, 단순한 존재 보고를 넘어 공간 내에서의 ‘존재 방식’과 ‘시각적 양태’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독자적인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현대 중국어의 실제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V着’ 존재문에 사용되는 동사는 과거 ‘放’, ‘挂’, ‘坐’ 등 전형적인 배치 및 자세 동사(Positional Verbs)를 넘어, 추상적 기운이나 심리적 상태를 공간화하는 비전형적 동사군으로 그 외연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범주의 확장은 존재 구문의 선택 기제가 단순한 통사적 제약을 넘어 화자의 주관적 시선인 ‘인지적 스캐닝’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주로 개별 구문의 통사적 제약 규명에 집중해 왔으며, 세 구문이 담화 내에서 어떠한 유기적 분업 체계를 형성하는지 대규모 코퍼스에 기반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언어는 화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역동적으로 선택되므로, 직관에 의존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구문 선택의 필연성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BCC(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Corpus)에서 추출한 총 4,500건(구문별 1,500건)의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구문의 통사·의미적 공기(Co-occurrence) 양상을 정밀 조사하고, 이를 인지-화용적 모델로 정립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BCC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有·是·V着’ 삼항 체계의 동사(V), 주어(L), 목적어(NP)는 어떠한 통계적 공기 특성을 보이며, 구문별 변별 자질은 무엇인가?

둘째, 구체적 기물에서 추상적 현상으로 확장되는 ‘V着’ 동사군의 의미 층위는 어떠한 인지적 경로를 거치며,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정태적 역동성(Static Dynamism)’의 화용적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화자가 특정 장면에서 세 구문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인지적 스캐닝 매커니즘은 무엇이며, 이를 담화 전략 모델로 정립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내성적 예문에 의존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중국어 존재문 체계 내에서 ‘V着’ 구문이 점유하는 묘사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구문 선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중국어 존재문은 장소어(L)가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출현 및 실존의 대상인 명사구(NP)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S(L)+V+NP’의 구조를 취한다. 본 장에서는 존재문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획정하고, ‘有·是·V着’ 삼항 체계의 분류 및 화용·인지적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한계와 본고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어 존재문의 정의 및 하위 분류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朱德熙(1982)의 ‘처소주어문(处所主语句)’ 담론에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는 장소어가 단순 부사어가 아닌 문법적 주어임을 역설하며 존재문의 통사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후 존재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초기 학자인 张志公(1954) 등은 “NP(물체)+在+L(처소)” 형식을 존재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雷涛(1993)와 张先亮·范晓(2010) 등은 이를 위치문(定位句)으로 분리하였다. 존재문은 처소를 주어로 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반면, 위치문은 대상을 주어로 삼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화용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吕叔湘(1980) 이후에는 존재·출현·소실을 통칭하여 ‘존현구(存现句)’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나, 宋玉柱(1982)와 范晓(1998) 등은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는 은현구(隐现句)를 제외하고 정태적 존재만을 다루는 ‘협의의 존재관(狭义存在观)’을 제안하였다. 또한, 朱德熙(1980)와 宋玉柱(1987) 등은 “台上唱着戏”와 같은 문장이 형식상 존재문과 유사하나, 공간적 위치보다 동작의 진행(Progressive) 혹은 사건성(Eventiveness)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를 ‘가존재문(假存在句)’으로 규정하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고 역시 화자의 시선이 상태 지속에 고착되는 정태적 존재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협의의 관점을 채택한다.

范晓(1998: 211-225)는 존재문을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존재(存在, Existence)’, ‘출현(出现, Appearance)’, ‘소실(消失, Disappearance)’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특히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인 ‘V着’ 구문은 동작의 결과가 장소 내에 고착되어 지속되는 ‘정태적 존재’ 범주를 대변한다. 储泽祥(1997)은 존재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V着’ 구조가 정태적 존재를 묘사하는 핵심 장치로 진화해 왔음을 논증하였으며, 宋玉柱(1982, 2007)는 존재문의 동사가 갖는 동작성이 ‘着’에 의해 상태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동사의 선택적 제약과 체계를 정교화하였다.

2.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의 분류 및 기능적 분업

현대 중국어 존재문의 분류 체계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크게 동사의 성격과 구문의 구조적 특징을 기준으로 체계화되어 왔다.

초기 연구인 陈廷珍(1957)은 존재문을 술어(谓语)의 성격에 따라 준계사, 타동사, 자동사 수반 구문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이후 范方莲(1963)은 존재문의 문법적 특징을 정밀하게 묘사하며 일반 동사술어문과의 차별성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현대적 의미의 ‘협의의 존재관’의 시초가 되었다. 그는 존재문을 ‘有’, ‘是’, ‘V着’의 삼항 체계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80년대 이후 존재문 연구의 전형적인 분석 모델(Paradigm)로 확립되었다.

이후 학자들은 동사의 의미 자질과 사태(Aspect) 표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张学成(1982)은 동사의 특징에 따라 ‘有’형, ‘是’형, 정태동사형, 묘사적 정태동사형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吕叔湘(1999)은 존재의 양태에 주목하여 단순 존재(有, 是) 외에 행위자의 자세(B类)와 피동적 상태(C类)를 구분하며 존재문의 화용적 묘사성을 구체화하였다. 雷涛(1993)와 宋玉柱(2007)는 존재문을 층위적 네트워크로 파악하였는데, 특히 宋玉柱(2007)는 존재문을 ‘정태(静态)’와 ‘동태(动态)’로 대분류한 후 정태 내에 ‘有, 是, 着, 了, 过’ 및 동사가 없는 ‘定心谓语句’ 등을 포함시켜 총 7종의 세부 계보를 완성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陈建民(1986)과 张先亮·范晓(2010)는 존재문을 단순 존재, 판단 존재, 상태 존재의 층위로 나누어 구문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有’, ‘是’, ‘V着’ 세 구문의 변별성을 규명하려는 화용적 접근이 이어졌다. 특히 潘文(2006)은 존재구문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存现句系统)으로 파악하고, 각 구문이 정보 구조 내에서 담당하는 화용적 층위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有’는 발견된 신정보의

도입, ‘是’은 대상의 식별과 공간적 전면성(Exhaustiveness), ‘V着’은 존재 방식의 구체적 묘사라는 기능적 분업을 이룬다. 또한 张斌(2010)과 张先亮·范晓(2010)는 ‘V着’ 구문이 화자의 시각적 초점을 객체의 양태에 고정하는 ‘전경화(Foregrounding)’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3. 인지언어학적 접근 및 본고의 차별성

최근 중국어학계는 Langacker(1987, 2008)의 인지문법 이론을 수용하여 존재문의 선택 기제를 화자의 시선 이동 및 포착 방식으로 설명한다. Langacker는 화자가 장면을 주관적으로 구성(Construal)하는 인지적 매커니즘을 ‘순차적 스캐닝(Sequential Scanning, a)’과 ‘포괄적 스캐닝(Summary Scanning, b)’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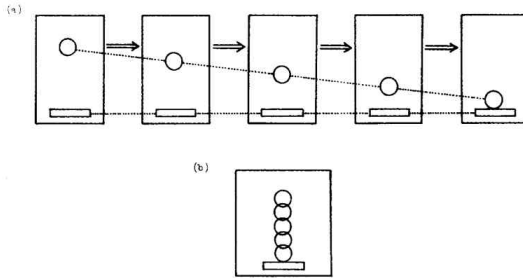


Fig. 3.11

〈그림 1〉 순차적 스캐닝(a)과 포괄적 스캐닝(a)의 인지 모델 (Langacker, 1987)

전자인 순차적 스캐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적하며 포착하는 방식(영화적 인지)인 반면, 후자인 포괄적 스캐닝은 장

1)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44-147, 248-250; Langacker, R.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79-82.

면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정지된 통합체로 누적하여 일시에 포착하는 방식(사진적 인지)을 의미한다. 陆俭明(2015)은 중국어 문법 연구의 현대적 조망을 통해 존재문의 형식이 단순한 통사 규칙의 조합이 아닌, 화자의 주관적 인지 방식인 주관적 구성(主观映现)의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屈承熹(2005)는 인지-기능주의 관점에서 존재구문의 변별성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화자가 장면 전체를 하나의 정지된 통합체로 포착하는 포괄적 스캐닝(累积扫描) 기제가 존재 유무를 보고하는 ‘有’나 정체를 식별하는 ‘是’의 인지적 토대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사건의 발생 과정보다는 이미 완료되어 고착된 ‘결과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반면, 객체의 안착 상태를 시간적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적하는 순차적 스캐닝 방식(顺序扫描)은 ‘V着’ 구문의 핵심 기제이다. 이는 ‘영화’를 감상하듯 화자의 시선이 시간 축을 따라 이동하며 동작의 흔적과 상태의 지속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屈承熹(2005)는 ‘V着’ 구문이 이러한 역동적 스캐닝을 통해 특정 객체를 정보의 전경(Foreground)으로 끌어올리고, 청자의 시각적 주의를 특정 지점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동일한 물리적 현상이라도 화자가 이를 새로운 정보의 단순한 ‘도입’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객체의 구체적인 ‘양태 묘사’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구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다.²⁾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존재문의 화용적 기능을 체계화하였으나, 주로 개별 예문의 직관적 분석에 의존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BCC 코퍼스의 대규모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사(V)-주어(L)-목적어(NP)’ 간의 연쇄적 공기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특히 특정 어휘 자질이 화자의 인지적 스캐닝 방식 및 담화 전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문 선택의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2) 屈承熹, 《汉语认知功能语法》, 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209-211页.

Ⅲ.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의 통사·의미적 특징 대조

본고에서는 현대 중국어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의 실증적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의 BCC 코퍼스(BLCU Corpus Cente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문별 각 1,500개씩, 총 4,500개의 원시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한 후, 수동 검토를 통해 2,315개의 유효 예문을³⁾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유효율 51.44%).⁴⁾

확정된 유효 예문을 대상으로 동사(V)의 의미 유형, 주어(L)의 장소어 성격, 목적어(NP)의 한정성을 주요 변인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공기(Co-occurrence) 양상은 IV장에서 논증할 인지적 스캐닝 방식 및 화용적 기제 모델링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1. 동사(V) 공기 제약 및 의미 대조

존재문의 동사(V)는 해당 구문이 지향하는 존재 양태를 결정하는 핵심 기제이다. 본 절에서는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구문이 가지는 동사의 어휘적 제약과 그에 따른 의미 변별성을 대조 분석한다. 특히 동사가 고정되어 있는 ‘有’와 ‘是’ 구문의 경우, 문장 전체가 나타내는 ‘존재 사건’의 의미 유형⁵⁾을 기준으로 그 분포와 화용적 특성을 고찰한다.

3) 본 연구는 BCC 코퍼스(<http://bcc.blcu.edu.cn/>, 최초 접속일: 2025.10.03., 최종 접속일: 2026.02.10.)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중복 사례, 오분류(소유문, 진행태 등), 문맥 미확인 예문을 제외하는 수동 필터링을 거쳐 진성 존재문만을 선별하였다.

4) <표 1> 구문별 유효 데이터 확보 현황

구분	원시 데이터	유효 데이터	유효율
‘有’ 존재문	1,500개	875개	58.33%
‘是’ 존재문	1,500개	717개	47.80%
‘V着’ 존재문	1,500개	723개	48.20%
합계	4,500개	2,315개	51.44%

1) ‘有’ 존재구문의 동사(V) 공기 제약 및 의미적 특징

‘有’ 존재구문은 동사의 구체적 의미가 ‘존재 유무’라는 근원적 정보로 수렴되어 탈색된 형태를 보인다. 어휘적 묘사보다는 정보의 가용성을 알리는 기능에 집중하며,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를 담화에 도입(Introduction)하는 기능이 강력하다. 유효 예문 875개 분석을 통한 의미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有’ 존재구문의 의미 유형별 분포 (N=875)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주요특징(인지적 기제)
A	물리적 실체 존재	448	51.2%	대상의 가용성 확보 및 정보 등록
B	대상/인물 출현	163	18.6%	화각 내 신정보 포착 및 출현 보고
C	현상 및 감각/속성	137	15.7%	비구체적 정보의 처소 귀속 및 현상화
D	추상/인지적 존재	127	14.5%	인지 영역 내 관념적 실체 정립
합계		875	100%	

- (1) a. 教室里有^有一个盒子。 [A유형: 물리적 실체]
 (교실 안에 상자가 하나 있다.)
 b. 天黑了, 不能出去, 外面有^有坏人。 [B유형: 인물/대상 출현]
 (날이 저물었으니 나가면 안 된다, 밖에 나쁜 사람이 있다.)
 c. 你身上有^有这些可怕的部分。 [C유형: 현상 및 속성]
 (너에게 이러한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
 d. 偶然中有^有必然。 [D유형: 추상/인지적 존재]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분석 결과, ‘물리적 실체 존재(A유형, 51.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는 화자가 공간을 스캐닝할 때 일차적으로 객체의 유무를 판단함을 보여준다. 예문 (1-a)의 ‘盒子’는 ‘有’를 통해 해당 공간의 가용 자원으로 등록(Registration)된다. 이어 출현 보고 기능을 수행하는 B유형(18.6%)은 예문 (1-b)의 ‘坏人’과 같이 시야 내에 포착된 위협이나 신정보를 즉각 보고한다.

또한 예문 (1-c)의 ‘可怕的部分’과 같이 특정 속성이 처소에 귀속됨을 나타내는 ‘현상/속성(C유형)’과, 관념적 실체인 ‘必然’을 담화 영역에 배치하는 ‘추상적 존재(D유형)’가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有’ 존재구문의 동사는 어휘적 함의를 최소화하는 대신, 포착된 대상을 공간에 안착시키는 ‘발견(Detection)’과 ‘등록(Registration)’의 화용적 토대를 제공한다.

2) ‘是’ 존재구문의 동사(V) 공기 제약 및 의미적 특징

‘是’ 존재구문은 장소(L)와 존재물(NP)을 동일시하는 계사(Copula)적 성격을 띠며, 공간의 일부가 아닌 ‘공간 전체’의 정체를 배타적으로 규정(Identity)한다. 동사는 장소어와 존재물 사이의 ‘환유적 대등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효 예문 717개 분석을 통한 의미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是’ 존재구문의 의미 유형별 분포 (N=717)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주요특징(인지적 기제)
A	물리적 지정/환유	376	52.4%	공간 좌표와 대상의 등가적(A=B) 식별
B	인물/군집의 확정	128	17.9%	불분명한 존재의 사회적/집단적 정체 부여
C	현상/배경의 정의	114	15.9%	처소 전체를 점유한 환경적 속성 규정
D	추상적 영역 규정	99	13.8%	관념적 인과 관계 및 본질의 형상화
합계		717	100%	

〈표 3〉에서 보듯, ‘是’ 존재구문은 물리적 지형이나 대상을 식별하는 A 유형(52.4%)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어 인물 군집(17.9%), 현상 배경(15.9%), 추상 영역(13.8%) 순으로 분포하며 공간 개념이 ‘물리적 차원에서 관념적 차원’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 | | |
|---|------------------|
| (2) a. 东面是山, 南面是公路.
(동쪽은 산이고, 남쪽은 도로이다.) | [A유형: 물리적 지형/환유] |
| b. 高考大军的旁边是家长大军.
(수험생 대군 옆은 학부모 대군이다.) | [B유형: 인물/군집의 확장] |
| c. 外面是凄风冷雨.
(밖은 처량한 비바람이다.) | [C유형: 현상/배경의 정의] |
| d. 智慧的尽头是信念!
(지혜의 끝은 신념이다.) | [D유형: 추상적 영역 규정] |

분석 결과, 물리적 지형을 식별하는 A유형(52.4%)이 가장 전형적이었다. 예문 (2-a)의 ‘山’과 ‘公路’는 지정된 처소 범위 전체가 곧 해당 객체임을 선언하는 환유적 등치 관계(Metonymic Equivalence)를 형성한다. 예문 (2-b)의 ‘家长大军’(학부모 대군)은 공간 구획 완료 후 내리는 결론적 판단으로서 공간의 ‘배타적 정체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외부 환경인 ‘凄风冷雨’(처량한 비바람)를 정지된 실체로 규정하는 방식(예문 2-c)은 화자의 주관적 확신이 투영된 결과이다. 나아가 예문 (2-d)는 ‘信念’(신념)과 같이 추상적 가치를 공간의 종착지로 정의함으로써 관념 체계에 좌표를 부여하는 고차원적 인지 장치로서의 활용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是’ 구문은 특정 좌표에 명확한 이름표(Labeling)를 부여하여 정체를 확정하는 공간 식별 기제(Spatial Identification Mechanism)의 특성을 지닌다.

3) ‘V着’ 존재구문의 동사(V) 공기 제약 및 의미적 특징

‘V着’ 구문은 술어 동사의 선택 폭이 가장 넓으며, 동사의 구체적 동작

방식이 ‘존재의 양태’를 결정한다. 이에 본고는 Levin(1993)의 동사 분류와 孟琮(1999)의 체계를 기초로 [장소(L)+동사(V)+대상(O)]의 관계성에 따라 동사군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Levin(1993)의 ‘Put verbs(배치)’, ‘Verbs of posture(자세)’, ‘Emission verbs(방출)’를 각각 본고의 A(물리적 배치/고착), B(신체 자세/유지), C유형(발산/충만)에 대응시키고,⁵⁾ 코퍼스 분석을 통해 ‘凝聚’, ‘滲透’ 등 추상적 고착 기능을 수행하는 동사군을 D유형(추상적 투영)으로 별도 체계화하였다. 유효 예문 723개의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V着’ 존재문의 동사 의미 유형별 분포 및 대표 어휘 (N=723)

유형	의미 범주	빈도(율)	주요 고빈도 어휘
A	물리적 배치 및 고착	312건 (43.2%)	写, 挂, 贴, 放, 摆, 堆, 铺, 刻 등
B	신체 자세 및 유지	185건 (25.6%)	站, 坐, 躺, 跪, 蹲, 靠, 跪, 趴 등
C	현상 발산 및 충만	124건 (17.1%)	飘, 弥漫, 笼罩, 闪, 涌, 泛, 溢 등
D	추상적 투영 및 심리	102건 (14.1%)	藏, 蕴含, 带着, 透露, 充满, 凝聚, 映 등
총계		723(100%)	

- (3) a. 门上贴着春联。 [A유형: 물리적 배치 및 고착]
 (문에 춘련이 붙어 있다.)
 b. 车底躺着一个人。 [B유형: 신체 자세 및 유지]
 (차 밑에 한 사람이 누워 있다.)
 c. 新郎、新娘脸上泛着红晕。 [C유형: 현상 발산 및 충만]

5)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본고는 이 문헌의 9장 ‘Verbs of Putting’(p.111), 43장 ‘Verbs of Emission’(p.233), 50장 ‘Verbs of Assuming a Position’(p.262) 등에서 논의된 범주들을 중국어 존재구문의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 붉은 기가 감돌고 있다.)

- d. 青年人的臉上透露着愤怒。 [D유형: 추상적 투영 및 심리]
(청년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다.)

분석 결과, 사물의 배치 상태를 묘사하는 A유형(43.2%)과 유정물의 자세를 나타내는 B유형(25.6%)이 주를 이뤘다. 이는 ‘V着’ 구문이 시각적 포착이 용이한 구체적 장면 묘사에 특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예문 (3-a)의 ‘贴’는 동작의 결과가 처소 표면에 밀착·지속됨을 가시화하여 객체의 존재 방식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전경화(Foregrounding)⁶⁾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躺’과 같은 구체적 자세(Manner)를 상세히 스캐닝하여 전달함으로써 장면의 생생함을 더한다(예문 3-b).

C유형인 (3-c)의 ‘泛’은 ‘红晕’(붉은 기)과 같은 감각적 현상이 공간 속으로 배어 나오는 역동적 상태의 지속(Dynamic Continuity)을 나타내며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아가 D유형의 (3-d)는 ‘透露’를 통해 ‘愤怒’(분노)와 같은 심리 상태를 처소화하여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는 인지적 은유(Cognitive Metaphor)의 양상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V着’ 존재구문은 동사의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존재의 구체적인 양태를 재구성하며, 정지된 장면 속에 동작의 흔적과 감각적 질감을 부여하는 ‘공간 묘사 및 장면화 기제(Spatial Description & Scenization Mechanism)’로서의 화용적 성격을 지닌다.

4) 소결: 동사(V) 공기 제약 및 의미 범주별 분포 대조

BCC 코퍼스 분석 결과, 존재문 삼항 체계(有·是·V着)는 의미 범주별 분포와 주요 기능에서 뚜렷한 변별성을 보였다. 총 2,315개 유효 예문을

6) Langacker(1987)에 따르면, figure는 배경(ground)에 비해 인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요소이며, 이러한 전경화는 trajector-landmark 관계 및 시점(perspective), 선택(selection) 등의 인지적 조작을 통해 구현된다.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120-121, 183-187.

통해 도출된 핵심 기능 대조는 다음과 같다.

〈표 5〉 존재문 삼항 체계의 의미 범주 및 주요 기능 대조

의미 유형	有 (도입적 존재)	是 (식별적 정의)	V着 (묘사적 지속)
A. 물리적 배치	51.2%	52.4%	43.2%
B. 대상/인물 출현 (자세)	18.6%	17.8%	25.6%
C. 현상/발산	15.7%	16.3%	17.1%
D. 추상/심리	14.5%	13.5%	14.1%
주요 의미 기능	정보의 가용성 보고	공간의 정체 확정	장면의 시각적 재구성
화용적 키워드	발견	식별	감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 구문 모두 물리적 실체 존재(A유형)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세부 지향점은 상이했다. ‘有’와 ‘是’가 50%를 상회하는 객체 지향적 전형성을 보인 반면, ‘V着’는 동사의 구체적 양태가 요구되는 인물 자세(B유형)와 현상 발산(C유형)에서 타 구문 대비 압도적인 분포를 기록했다.

이는 ‘V着’ 구문이 어휘적 풍부함을 바탕으로 장면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화자가 이를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감상(Appreciation)의 화용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有’ 구문은 신정보를 담화에 등장시키는 발견(Detection)에, ‘是’ 구문은 처소와 존재물을 동일시하여 정체를 확정하는 식별(Identification)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존재문 삼항 체계의 선택은 화자가 공간을 어떠한 인지적 층위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른 전략적 분업(Strategic Division of Labor)의 결과이다. 본 절에서 확인된 동사의 의미적 변별성은 이어지는 3.3절의 처소 주어(L)와 목적어(NP)의 통사 제약 분석과 결합하여 구문 선택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토대가 된다.

2. 주어(L) 공기 제약 및 의미 대조

1) ‘有’ 존재구문 주어(L)의 통사·의미적 특징

‘有’ 존재구문의 주어(L)는 담화에서 정보 탐색의 배경이 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 결과, 화자는 대상을 특정 지점(Point)보다는 포괄적인 내부 영역(Area)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6〉 ‘有’ 존재구문의 주어(L) 유형별 분포 (N=875)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주요 특징
L-B	포괄적 내부 영역	408	46.6%	里, 内, 中 등 경계 내 포함 강조
L-A	구체적 물리 표면	196	22.4%	上, 面 등 접촉 및 고착 지점
L-C	상대적 좌표/방위	145	16.6%	附近, 旁边, 前面 등 탐색 방향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126	14.4%	심리, 논리 체계, 가상 공간
합계	유효 예문	875	100%	

- (4) a. 电话里有风呼啸的声音。 [L-B: 포괄적 내부 영역]
 (전화기 너머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린다/있다.)
- b. 姑娘, 你的肩上有草屑。 [L-A: 구체적 물리 표면]
 (아가씨, 당신 어깨 위에 풀 부스러기가 있네요.)
- c. 还好附近有KFC。 [L-C: 상대적 좌표/방위]
 (다행히 근처에 KFC가 있다.)
- d. 父母的记忆里有历史的凝重。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부모님의 기억 속에는 역사의 장중함이 있다.)

주어 위치에는 ‘포괄적 내부 영역(L-B, 46.6%)’이 가장 많이 쓰였다. 이는 ‘有’의 원형인 소유(Possession) 개념이 투영되어 장소를 객체를 담은

공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예문 (4-a)의 ‘电话里’는 통화 공간을 하나의 경계(Boundary)로 설정하여 그 내부의 신정보를 보고한다.

또한 ‘附近’이나 ‘旁边’과 같은 좌표어의 결합(예문 4-c)은 화자의 시야에 들어온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알리는 ‘발견의 화용론’을 수행한다. 나아가 ‘记忆里’와 같이 비가시적 개념을 공간화하여 특정 가치의 내포를 논리적으로 선언하기도 한다(예문 4-d).

종합하자면, ‘有’ 존재구문의 주어는 [경계가 있는 영역(L-B) 내에서의 존재 확인]에 최적화되어 있다. ‘有’ 구문은 장소라는 배경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는 ‘배경-초점(Ground-Focus)’ 인지 스캐닝 방식을 따르며, 이를 통해 담화 내 신정보를 가장 경제적으로 도입한다.

2) ‘是’ 존재구문 주어(L)의 통사·의미적 특징

‘是’ 구문은 화자가 공간 탐색을 완료한 후, 특정 지점의 정체를 확정하여 전달한다. 분석 결과, 주어(L)는 공간의 구획과 명명(Naming)에 최적화된 분포를 보였다.

〈표 7〉 ‘是’ 존재구문의 주어(L) 유형별 분포 (N=717)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주요 특징
L-C	상대적 좌표/방위	312	43.5%	공간 분할 및 구역 명명(Labeling)
L-A	구체적 물리 표면	164	22.8%	지점과 대상의 일치(Identity)
L-B	포괄적 내부 영역	128	17.9%	내부 성분의 정체 확정(Exhaustive)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113	15.8%	판단 결과의 공간적 귀결(Conclusion)
합계	유효 예문	717	100%	

- (5) a. 前面是桥, 下面是溪。 [L-C: 상대적 좌표/방위]
 (앞은 다리이고, 아래는 시내(개울)이다.)
- b. 上面是面粉鸡蛋南瓜。 [L-A: 구체적 물리 표면]
 (윗부분은 밀가루, 달걀, 단호박이다.)
- c. 奶瓶里面是母乳。 [L-B: 포괄적 내부 영역]
 (젖병 안은 모유다.)
- d. 坚定的眼神背后是信念的支撑。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확고한 눈빛의 이면은 신념의 버팀목이다.)

‘是’ 구문은 ‘有’ 구문과 달리 좌표 및 방위사(L-C, 43.5%)와 가장 강력하게 결합한다. 이는 화자가 전체 공간을 인지적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라벨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예문 (5-a)의 ‘前面’과 ‘下面’은 분할된 좌표의 정체를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물리적 표면(L-A)인 ‘上面’(예문 5-b)이 주어로 쓰일 때, ‘是’는 해당 지점이 대상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었음’을 선언하여 정보를 완결 짓는다. 내부 영역(L-B)인 ‘奶瓶里面’(예문 5-c)과 결합할 경우에도 단순한 존재 보고를 넘어 성분의 본질을 확정하는 ‘식별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背后’와 같이 추상적 관계를 공간 좌표로 치환하여 정의 내리는 최종적 판단 기제로 활용된다(예문 5-d).

결론적으로 ‘是’ 존재구문의 주어는 화자가 이미 탐색을 완료한 공간 내에서 특정 좌표를 지목하고, 그 지점이 지닌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정의하는 ‘지시적 식별 기제’로서의 통사·의미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담화 초반에 정보를 새로 도입하는 ‘有’(내부 영역 L-B 선호)와 명확히 구분되는 ‘是’ 구문만의 독자적 화용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V着’ 존재구문 주어(L)의 통사·의미적 특징

‘V着’ 존재구문은 동사의 구체적인 어휘 의미가 주어의 물리적 성격과 가장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문이다. 코퍼스 분석 결과, ‘V着’ 구문의 주어(L)는 앞선 두 구문과 달리 ‘표면(Surface)’과 ‘밀착(Attachment)’의 개념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효 예문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8〉 ‘V着’ 존재구문의 주어(L) 유형별 분포 (N=723)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주요 특징
L-A	구체적 물리 표면상	338	46.7%	표면 지지 및 부착
L-B	포괄적 내부 영역	165	22.8%	내부 성분의 삼투와 충만(Permeation)
L-C	상대적 좌표/방위	126	17.4%	시각적 장면의 박제(Freeze-frame)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94	13.1%	비가시적 속성의 형상화(Concretization)
합계	유효 예문	723	100%	

- (6) a. 窗台上放着各种花花草草。 [L-A: 구체적 물리 표면]
(창틀 위에 각종 꽃과 풀들이 놓여 있다.)
b. 空气中弥漫着栀子花淡淡的香气。 [L-B: 포괄적 내부 영역]
(공기 중에 치자꽃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다.)
c. 外面下着大雨。 [L-C: 상대적 좌표/방위]
(밖에는 큰비가 내리고 있다.)
d. 眼神里带着野性。 [L-D: 추상적/인지적 공간]
(눈빛 속에 야성이 담겨 있다.)

‘V着’ 구문은 구체적 물리 표면(L-A, 46.7%)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 중심의 ‘有’, L-C 중심의 ‘是’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구문 선택이 객체의 물리적 접촉 상태와 밀접함을 보여준다. 예문 (6-a)의 ‘窗台上’은 대상이 지지받는 평면이며, 동사 ‘放’과 결합하여 표면에 고착된 정적인 양태를 시각화한다.

또한 내부 영역(L-B)인 ‘空气中’(예문 6-b)과 결합할 때는 객체 유무보다 공간을 장악한 분위기나 질감을 묘사한다. 좌표어 주어인 ‘外面’(예문 6-c)과의 결합은 특정 찰나를 포착하여 회화적 장면으로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眼神里’(예문 6-d)와 같은 추상적 영역은 구체적 동사를 통해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되는 인지적 은유의 양상을 보인다.

종합하면 ‘V着’의 주어는 중립적 배경이 아니라, 동사의 흔적이 처소의 물리성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묘사적 전경(Foreground)으로 기능한다.

4) 소결: 주어(L) 공기 제약 및 의미 범주별 분포 대조

앞선 코퍼스 분석 결과, ‘有’, ‘是’, ‘V着’ 각 존재구문은 주어 (L) 선택에 있어 명확한 선호도를 보이며, 이는 화자가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증명한다. 분석된 총 2,315개의 유효 예문을 종합 대조한 결과, 각 구문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 제약과 화용적 지향점을 나타냈다.

〈표 9〉 ‘有·是·V着’ 구문의 주어(L) 분포 특징 및 의미적 변별성 대조

분석 항목	‘有’ 존재문 (포함적 존재)	‘是’ 존재문 (식별적 정의)	‘V着’ 존재문 (묘사적 안착)
최고 빈도 주어	L-B (46.6%)	L-C (43.5%)	L-A (46.7%)
핵심 인지 키워드	경계 내 포함 및 가용성	좌표 분할 및 정체 확정	물리 표면 지지 및 묘사
대표 결합 표지	里, 内, 中 등	左/右, 下, 后 등	上, 面 등

첫째, ‘有’ 구문은 주어의 내부 영역(L-B) 비중이 타 구문에 비해 압도적(46.6%)으로 높다. 이는 화자가 장소의 경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 내부의 가용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수량구’ 목적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최초 ‘도입’하는 데 최적화된 통사 구조를 지닌다.

둘째, ‘是’ 구문은 상대적 좌표(L-C)를 주어로 삼아(43.5%) 공간의 특정 지점과 존재물(NP)을 동일시한다. 통계적으로 좌표어와 고유명사 목적어의 결합이 빈번한데, 이는 화자가 공간 탐색을 완료한 후 특정 좌표에 명확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라벨링’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V着’ 구문은 물리적 표면(L-A) 주어의 비중(46.7%)이 삼항 체계 중 가장 높다. 이는 동사가 지닌 구체적인 동작의 흔적이 주어의 표면성과

결합하여 존재의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디에 있다는 보고를 넘어, 대상이 표면에 어떻게 안착해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장면화’하여 전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어 존재구문의 주어 선택은 화자가 공간을 ‘그릇(有)’, ‘좌표(是)’, ‘표면(V着)’ 중 어떠한 층위로 범주화하느냐에 따른 인지적 필연성을 가진다. 본 절에서 도출된 주어의 통계적 편중성은 이어지는 3.3. 존재문 목적어(NP)의 특징 분석과 결합하여, 존재문의 각 구문이 단순한 유의 관계를 넘어 고유한 화용적 영역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3. 목적어(NP) 공기 제약 및 의미 대조

1) ‘有’ 존재구문 목적어(NP)의 통사·의미적 특징

‘有’ 존재구문에서 목적어(NP)는 화자가 특정 장소(L) 내에서 새롭게 포착하여 청자에게 도입하는 ‘신정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有’의 목적어는 대상의 존재를 객관화하기 위한 수량 표현이나 처소의 속성을 기술하는 명사와 높은 공기 양상을 보였다.

〈표 10〉 ‘有’ 존재구문의 목적어(NP) 유형별 분포 (N=875)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인지적 기제
NP-1	수량구 결합 명사	345	39.4%	존재의 객관적 수량화 및 신정보 도입
NP-2	구체물 및 신체 부착물	252	28.8%	처소의 상태를 규정하는 미세 속성 기술
NP-3	유정물/가동체	164	18.8%	관찰 범위 내 유정물의 돌발적 출현 보고
NP-4	추상적 사건 및 정보	114	13.0%	비물리적 개념의 실체화 및 가용성 선언
합계	유효 NP	875	100%	

- (10) a. 每个沙发的右边边有个线控。 [NP-1: 수량구 결합]
 (소파마다 오른쪽에 유선 컨트롤러가 하나씩 있다.)
 b. 墙壁、煤气灶附近的墙壁上有油污。 [NP-2: 구체물/부착물]
 (벽면과 가스레인지 근처 벽에 기름때가 끼어 있다.)
 c. 老大, 后面有警车, 怎么办? [NP-3: 유정물/가동체]
 (형님, 뒤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d. 大家不感觉他们之间有利益扭结吗? [NP-4: 추상적 사건/정보]
 (여러분은 그들 사이에 이권 다툼이 얽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 ‘수량구 결합 명사(NP-1, 39.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문 (10-a)의 ‘有个线控’처럼 목적어가 수량구와 빈번히 결합하는 것은 미지(未知)의 정보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실재성을 구체화하려는 인지적 경향을 반영한다. 이는 목적어를 불특정(Indefinite) 상태로 유지하여 새로운 화제를 안착시키는 정보 도입 기제로서의 특징을 뒷받침한다.

또한 예문 (10-b)의 ‘油污’(기름때)와 같은 미세 부착물의 가시화는 역으로 처소 주어(L)의 물리적 상태를 규정하는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警车’(경찰차)와 같은 가동체의 돌발적 등장 보고(예문 10-c)는 정체 식별을 우선시하는 ‘是’와 구별되는 ‘有’만의 화용적 선택이다. 나아가 예문 (10-d)처럼 ‘利益扭结’(이권 다툼) 등 추상적 개념을 공간 내 가용 실체로 형상화하여 전달력을 극대화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有’ 존재구문의 목적어는 [수량적 구체성]과 [불특정성]을 담보로 신정보를 도입하는 화용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有’의 목적어는 설정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발견된 가용 정보의 실체이며, 담화의 초점을 객체의 실재성으로 유도하여 후속 담화의 전개를 가능케 하는 핵심 통사 장치라 할 수 있다.

2) ‘是’ 존재구문 목적어(NP)의 통사·의미적 특징

‘是’ 존재구문의 목적어(NP)는 화자가 처소 주어(L)가 지시하는 특정 좌표나 범위를 인지적으로 스캐닝한 후, 그곳에 존재하는 대상의 정체를 최

중적으로 확정하여 제시하는 ‘식별 정보(Identified Information)’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효 예문 717개의 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1〉 ‘是’ 존재구문의 목적어 유형별 분포 (N=717)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인지적 기제
NP-A	고유 명칭 및 특정 지시물	293	40.9%	특정 좌표에 대한 명명 및 유일성 식별
NP-B	구체적 사물 및 재질/성분	215	30.0%	재질·성분 및 시각적 형태의 등가
NP-C	유정물 (역할/신분/관계)	129	18.0%	대상의 사회적 정체성 및 존재 가치 확정
NP-D	추상적 본질 및 결과 등가물	80	11.1%	관념적 과정의 종착지 정의 및 논리적 등치
합계	유효 NP	717	100%	

- (11) a. 停车场上面是Ferrari旗舰店。 [NP-A: 고유 명칭]
(주차장 위는 페라리 플래그십 스토어다.)
b. 领子上是羊羔毛, 里面是羊羔绒。 [NP-B: 재질/성분]
(깃 부분은 어린 양털이고, 안감은 양털 솜이다.)
c. 左边是坐在看台上统一着装的观众。 [NP-C: 역할/신분]
(왼쪽은 관람석에 앉아 복장을 통일한 관객들이다.)
d. 智慧的尽头是信念。 [NP-D: 추상적 본질]
(지혜의 끝은 신념이다.)

분석 결과, ‘고유 명칭 및 특정 지시물(NP-A, 40.9%)’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문 (11-a)의 ‘Ferrari旗舰店’처럼 목적어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향은 화자가 특정 지점에 가치를 규정하는 라벨링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문 (11-b)처럼 ‘羊羔毛’(양털)와 같은 재질 규정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완벽한 등가 관계를 형성하여 정체를 확정 짓는다. 예문 (11-c)

처럼 유정물의 경우에도 단순 출현 보고를 넘어 ‘观众’(관객)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을 확정하는 결론적 판단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예문 (11-d)처럼 ‘信念’(신념)과 같이 추상적 종착지를 실제로 규정함으로써 관념적 정의를 내리는 고차원적 식별 장치로 활용된다.

종합하면 ‘是’ 존재구문의 목적어는 [특정성]과 [확정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정체를 규명하며, 담화의 초점을 객체의 유무가 아닌 ‘객체의 정체성 확정’으로 유도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3) ‘V着’ 존재구문 목적어(NP)의 통사·의미적 특징

‘V着’ 존재구문의 목적어(NP)는 동사의 구체적인 동작 의미와 결합하여, 특정 처소(L)에 안착하거나 지속되고 있는 대상의 ‘정태적 양태(Static Aspect)’를 담당한다. 유효 예문 723개의 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2〉 ‘V着’ 존재구문의 목적어 유형별 분포 (N=723)

유형	의미 범주	빈도(건)	비율(%)	인지적 기제
NP-A	구체적 기물 및 부착물 ⁷⁾	370	51.1%	동작 흔적의 고착 및 시각적 전경화
NP-B	자연 현상 및 감각 정보	141	19.5%	공간 내 현상의 삼투와 배경적 지속
NP-C	유정물/자세 유지	123	17.1%	특정 자세의 유지 및 장면의 박제
NP-D	추상적 속성 및 가치	89	12.3%	비가시적 속성의 감각적 형상화
합계	유효NP	723	100%	

7) 본고에서는 목적어 분류 시 ‘有’는 수량성(Quantity)을, ‘是’는 특정성(Definiteness)을, V着은 ‘물리적 구체성(Concreteness)’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각 구문이 인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는 정보 자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 범주에는 장면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사와 결합한 형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有’의 존재 보고용 수량사와 구별된다.

- (12) a. 地下摆着好几张桌子。 [NP-A: 구체적 기물/부착물]
 (바닥에 탁자 몇 개가 놓여 있다.)
- b. 操场上回荡着音乐。 [NP-B: 자연 현상/감각 정보]
 (운동장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
- c. 对面坐着一帮高中生。 [NP-C: 유정물/자세 유지]
 (맞은편에 고등학생 한 무리가 앉아 있다.)
- d. 那里面闪烁着正义和人性的光芒。 [NP-D: 추상적 속성/심리]
 (그 안에는 정의와 인성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분석 결과, ‘구체적 기물 및 부착물(NP-A, 51.1%)’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예문 (12-a)의 ‘好几张桌子’처럼 목적어가 수량 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대상의 물리적 부피감을 부각하여 화자의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音乐’(음악)과 같은 감각 정보(예문 12-b)를 처소 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공간의 질감을 강조하고 시간을 장면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준다. 예문 (12-c)처럼 유정물의 경우에도 ‘一帮高中生(고등학생 무리)’이 취한 자세의 지속성에 집중하여 풍경의 일부로 박제(Freeze-frame)한다. 나아가 ‘光芒’(빛)과 같이 추상적 가치를 시각적 동사와 결합해 물리적 실체로 변환하는 감각적 형상화의 양상을 보인다(예문 1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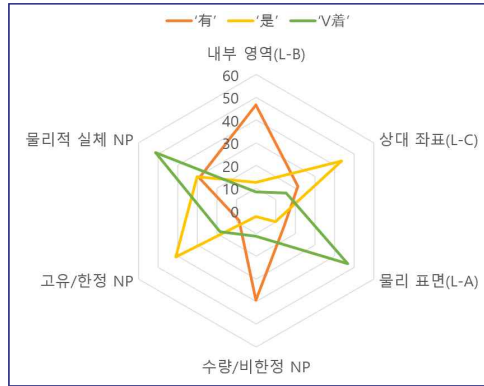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V着’ 존재구문의 목적어는 [동작 결과의 지속성]과 [시각적 구체성]을 바탕으로 장면의 완결성을 부여한다. ‘V着’의 목적어는 화자가 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포착한 존재의 ‘양식(Mode)’이며, 이는 담화의 초점을 대상과 처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유도하는 통사적 장치라 정의할 수 있다.

4. 소결: 존재구문 삼항 체계의 종합 대조 분석

본 장에서 고찰한 2,315건의 코퍼스 분석 결과는 중국어 존재구문 삼항 체계가 동사(V)의 의미적 제약에 따라 주어(L)와 목적어(NP)의 선택이 연

쇄적으로 결정되는 정교한 화용적 분업 체계임을 보여준다.

각 구문은 화자가 대상을 인지하고 담화에 도입하는 단계에 따라 차별적 특성을 지닌다. 주어(L)의 처소성과 목적어(NP)의 정보 성격(핵심지표 6개)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구문별 ‘무게중심’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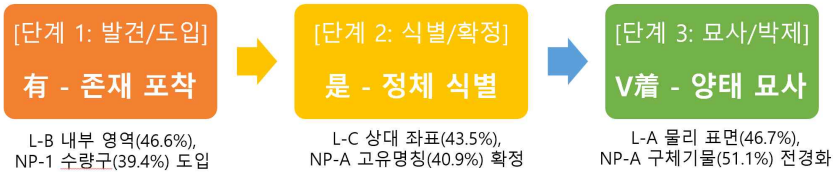
〈그림 2〉 구문별 인지 통사적 무게중심 대조

‘有’ 구문은 동사의 의미가 단순 존재 유무로 수렴됨에 따라, 장소를 내용을 담는 ‘그릇(L-B, 46.6%)’으로, 대상을 ‘비한정 수량 정보(NP-1, 39.4%)’로 규정한다. 이는 미지의 객체를 포착하여 실제성을 증명하고 담화 자원으로 등록하는 ‘발견/도입’의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반면 ‘是’ 구문은 계사적 등치 기능을 바탕으로 장소를 특정 ‘상대 좌표(L-C, 43.5%)’로, 대상을 해당 지점에 귀속된 ‘고유 명칭 및 지시물(NP-A, 40.9%)’으로 특정한다. 이는 정체 확정이 우선시되는 화용적 선택으로서 공간 마디마디에 정보를 부여하는 ‘라벨링’ 기능을 담당한다.

8) 인지적 무게중심(prominence)은 개념 구조 내에서 특정 하위 구조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이러한 두드러짐은 기반(base)을 바탕으로 한 profiling을 통해 실현된다.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183-187.

‘V着’ 구문은 동사의 양태적 구체성을 핵심으로 하여, 장소를 동작의 접촉이 일어나는 ‘물리적 표면(L-A, 46.7%)’으로, 대상을 그 위에 안착한 ‘구체적 기물(NP-A, 51.1%)’로 구체화한다.⁹⁾ 이는 화자가 대상의 지속적인 정태적 모습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문장을 하나의 정지된 사진처럼 구성하는 ‘묘사/감상(Appreciation)’의 전략을 반영한다.



〈그림 3〉 인지적 초점 이동에 따른 존재구문 선택 프로세스

구문별 통계적 편중성은 화자의 단계적 스캐닝 경로를 반영하며, 위 다이어그램과 같이 세 단계의 ‘인지적 초점 이동 프로세스’로 정식화할 수 있다.

첫째, 발견 단계(Detection)이다. 특정 영역 내에 새로운 정보가 있음을 포착하여 보고하는 단계로, ‘有’ 구문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식별 단계(Identification)이다. 발견된 대상이 무엇인지 정체를 확정하는 단계로, ‘是’ 구문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묘사 단계(Description)이다. 대상이 안착된 세부 양태를 포착하여 장면화하는 단계로, ‘V着’ 구문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존재구문 삼항 체계의 선택은 화자가 공간을 어떠한 인지적 층위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른 전략적 스캐닝(Strategic Scanning)의 결과이다. 본 장에서 확인된 통계적 필연성은 제4장에서 화자의 시선 이동과 인지 스키마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9) 〈그림 2〉에서 V着 존재구문의 ‘수량/비한정 NP’ 축이 낮게 나온 것은 본고에서 ‘존재 보고를 위한 순수 수량 정보’로 그 정의를 한정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물리적 실체 NP’ 축에서 고점을 찍는 것은 수량사 유무와 관계없이 ‘객체의 물리적 양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Ⅳ. 존재문 선택의 인지-화용 매커니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존재문은 화자가 처소(L)라는 배경(Base)을 탐색하여 객체(NP)라는 전경(Figure)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통계적 실체를 근거로, 화자의 시선 이동 방식과 담화 전략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인 구문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한다.

1. 인지적 스캐닝의 분화

인지언어학에서 인지적 스캐닝(Cognitive Scanning)이란 화자가 심적 공간이나 물리적 장면을 탐색할 때 시선이나 주의가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Langacker(1987, 2008)는 동일한 장면이라도 화자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스캐닝(포괄적 스캐닝 vs. 순차적 스캐닝, <그림 1>)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 구조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중국어의 존재구문은 화자가 처소라는 경계 내에서 대상을 포착하는 ‘심적 경로’를 반영하며, 이러한 스캐닝의 분화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어 존재구문(有, 是, V着)의 인지적 스캐닝 분업 모델

〈그림 4〉에서 보듯, ‘有’는 범위형(Inclusion Schema)으로 전체 공간을 포괄하는 파노라마 스캐닝을, ‘是’는 식별형(Identification Schema)으로 특정 좌표를 지목하는 지시적 스캐닝을, ‘V着’는 양태형(Description Schema)으로 객체의 안착 상태를 정밀 묘사하는 상세 스캐닝을 수행한다. 즉, 화자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간적 포괄(有), 특정 지점 지목(是), 미시적 확대(V着)라는 서로 다른 인지 전략을 취한다.

- (13) a. 园子里有假山、六角亭子、浅鱼池, 还有各种各样的树木。
 (정원 안에는 인공산, 육각정, 얇은 연못이 있고, 각종 나무들도 있다.)
 b. 左手边是美女! 右手边是队友!
 (왼쪽은 미녀이고, 오른쪽은 팀 동료이다!)
 c. 工作服上有油污 → 工作服上沾着油污。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다.)

첫째, ‘有’ 구문은 포괄적 스캐닝(Summary Scanning)을 수행한다. 화자는 장소를 독립된 ‘그릇’으로 인지하고 내부 콘텐츠를 총체적으로 포착한다. 범위사(‘里, 中’)가 주어에서 높은 비중(46.6%)을 차지한 것은 공간의 ‘경계 설정’을 우선시하는 인지 기제를 반영한다. 예문 (13-a)는 ‘园子’라는 전체 공간을 훑으며 객체들의 집합적 존재성을 일괄 보고하는 파노라마적 시선을 보여준다.

둘째, ‘是’ 구문은 지시적 스캐닝(Deictic Scanning)을 사용한다. 이미 파악된 공간 구조 내에서 특정 지점을 찍듯 지목하여 정체를 식별한다. ‘左手边, 右手边’ 등 좌표어 주어가 우세한 이유는 시선이 특정 좌표에 고정되기 때문이다. 예문 (13-b)에서 화자는 각 좌표를 점유한 대상의 유일한 정체를 확정하는 라벨링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V着’ 구문은 상세 스캐닝(Detailed Scanning) 전략을 취한다. 화자는 객체의 안착 방식과 동작의 흔적을 정밀하게 관찰한다. 물리적 접촉면(‘上’)이 주어로 선호되는 것은 객체의 ‘밀착 양태’에 초점을 맞추기 때

문이다. 예문 (13-c)에서 보듯 단순히 존재를 알리는 ‘가용성 보고(有)’와 달리, ‘V着’는 기름때(油污)가 작업복이라는 표면에 ‘들러붙어(沾)’ 있는 시각적 디테일을 전경화하여 기술한다.

2. 화용적 기능 모델과 담화 전략

인지적 스캐닝의 분화는 단순히 시각적 탐색의 차이를 넘어, 담화 내에서 서로 다른 정보 전달 목적을 창출한다. 화자는 청자의 지식 상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屈承燾(2005)에 따르면, 중국어 존재구문의 선택은 화자의 인지적 목적에 의해 규정된다. 그는 ‘有’ 구문을 새로운 대상을 담화 내로 유입시키는 ‘도입 기제’로, ‘是’ 구문은 특정 공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대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식별 기제’로 분석한다.¹⁰⁾ 이는 본고에서 제시한 ‘배경화(有)’와 ‘확정적 명명(是)’의 전략적 차이와 궤를 같이하며, 화자의 인지적 스캐닝이 정보의 확정성(Definiteness)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1) 도입 모델과 배경화 전략 : ‘有’ 존재문

‘有’ 구문은 청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상을 담화의 전면에서 등장시키는 최초의 도입 기제이자, 객체를 처소(L)에 담긴 부속물로 처리하여 이후 이어질 서사를 위한 배경화(Backgrounding) 전략이다.

(14) a. 灿烂阳光下有一群追逐梦想孩子们。

(찬란한 햇살 아래 꿈을 쫓는 아이들이 한 무리 있다.)

b. 电视上有一则报道：“据调查，男人中有70%希望有一次婚外恋”

(TV에 한 보도가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중 70%가 외도를 바란다.”)

10) 屈承燾, 《汉语认知功能语法》, 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209~211页.

화자는 처소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그 안에 불특정 대상(NP-3, NP-4)을 도입한다. 목적어에서 수량구 결합 명사(39.4%)가 빈번한 것은 이처럼 미지의 정보를 실재하는 실체로 구체화하여 전달함으로써 담화 내 가용 자원으로 등록하려는 화용적 의도를 반영한다. 예문 (14-a)에서 화자는 ‘햇살 아래(陽光下)’라는 광활한 공간을 파노라마적으로 스캐닝하며, 그 안에 담긴 ‘아이들(孩子們)’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담화의 가용 자원으로 등록한다. 이는 미지의 정보를 실재하는 실체로 구체화하여 전달하려는 화자의 ‘발견’ 의도를 반영한다.

또한 (14-b)처럼 ‘TV 보도’를 처소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해당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전개에 앞서 그 정보가 존재하는 ‘출처와 배경 상황’을 먼저 설정하는 전략적 스캐닝의 산물이다. 즉, ‘有’ 구문은 특정 대상을 독립적인 주인공으로 부각하기보다, 공간(L)과 대상(NP)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이후 이어질 논의나 서사를 뒷받침하는 인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식별 모델과 확정적 명명 전략 : ‘是’ 존재문

‘是’ 구문은 존재 여부가 아닌, 특정 지점에 위치한 대상의 정체성을 밝혀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식별 기제이자, 공간 마디에 명확한 식별 값을 부여하는 확정적 명명(Labeling) 전략이다.

- (15) a. 前面是一片芦苇, 芦苇的外围是湖面。
 (앞은 갈대밭이고, 갈대밭의 외곽은 호수이다.)
 b. 前面是个戴帽子黑人年轻人。
 (앞에 있는 사람은 모자를 쓴 흑인 청년이다.)

‘是’ 구문에서 화자는 ‘ $L=NP$ ’라는 배타적 등치 관계를 형성하여 공간 마디에 명확한 식별 값을 부여한다. 예문 (15-a)에서 화자는 시선이 닿는 좌표(前面, 外围)마다 ‘갈대밭’, ‘호수’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공간의 지도를

완성해 나간다. 이는 ‘有’ 구문이 대상을 배경 속에 도입하는 것과 달리, 대상을 공간의 주인공으로 전경화하여 그 정체를 확정하는 전략이다.

또한 예문 (15-b)처럼 특정 지점에 위치한 인물을 ‘모자를 쓴 흑인 청년’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존재를 알리는 단계를 넘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식별의 과정을 반영한다. 목적어 분석에서 고유 명칭 및 확정적 지시물(40.9%)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정 공간에 고유한 ‘이름표’를 붙여 타 대상과의 혼동을 제거하고 정보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려는 화자의 확정적 명명 전략을 뒷받침한다.

3) 묘사 모델과 전시적 전경화 전략 : ‘V着’ 존재문

‘V着’ 구문은 대상을 공간 속에 정지된 풍경으로 부각하여 시각적 주의를 고착시키는 회화적 전경화(Pictorial Foregrounding) 기능을 수행한다.

(16) a. 餐桌上放着母亲为我炖的甜品。

(식탁 위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아 주신 디저트가 놓여 있다.)

b. 家里摆着烟, 兜里揣着烟和火。

(집안에는 담배가 진열되어 있고, 주머니 속에는 담배와 라이터가 찔러 넣어져 있다.)

화자는 동사를 통해 객체가 표면에 안착된 정지된 화면을 구성한다. 예문 (16-a)에서 ‘放(놓다)’이라는 동사는 단순히 디저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그것이 식탁이라는 물리적 평면에 놓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정태적 양태를 전경화한다. 특히 목적어인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아 주신 디저트’라는 구체적이고 정서적인 대상은 ‘V着’의 상세 스캐닝을 통해 정교하게 묘사된다.

또한 예문 (16-b)에서 ‘摆(진열하다)’, ‘揣(품에 넣다/찌르다)’와 같은 구체적인 동작 동사의 사용은 대상이 장소와 맺고 있는 물리적 접촉의 방식을 시각화한다. 목적어 분석에서 구체적 기물(51.1%)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물의 질감과 고착 방식이 상세히 기술될 때 가장 강력한 회화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며, 화자는 이를 통해 청자가 장면의 정취를 주관적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위의 대조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접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화제의 도입(有)’으로 처리할지, ‘모호한 정체의 식별(是)’로 처리할지, 혹은 ‘시각적 양태의 전경화(V着)’로 처리할지에 따라 구문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는 코퍼스 분석에서 나타난 수량구(有), 고유명사(是), 구체적 기물(V着)의 통계적 편중이 화자의 인지적 목적과 정교한 정합성을 이루고 있음을 입증한다.

3. 인지적 필연성과 실증적 대조

중국어 존재구문 삼항 체계의 분화는 제한된 인지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지적 경제성(Cognitive Economy)과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다.

1) 인지적 필연성에 기초한 구문 대조 분석

인간은 장면의 모든 정보를 동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화자는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경화한다. 어두운 방의 불을 켜고 있을 때, 화자의 인지 상태에 따른 선택 경로와 그에 따른 구체적 구문 대조는 다음과 같다.

발견 중심: 단순히 방 안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했다면 수량 보고 위주의 ‘有’ 모델이 가장 경제적이다 (예: 屋里有个人).

확인 중심: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둑인지, 가족인지)를 가려내야 한다면 좌표와 정체를 일치시키는 ‘是’ 모델이 필연적이다 (예: 那个人是小偷).

감상 중심: 그가 어떤 자세로 숨어 있는지 시각적 디테일에 집중한다면 양태 동사를 수반하는 ‘V着’ 모델이 선택된다 (예: 角落里蹲着一个人).

2) 실증적 구문 대조를 통한 변별성 규명

앞서 살펴본 인지적 선택 원리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조쌍을 통해 실증된다.

(1) 존재의 도입(발견) vs 존재의 양태(묘사)

단순히 누군가 있음을 감지했다면 수량 보고 위주의 ‘有’ 모델(배경화 전략)이 가장 경제적이거나, 그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디테일에 집중한다면 ‘V着’ 모델(전시적 묘사 전략)이 선택된다.

- (17) a. 一家餐馆门口有台小皮卡车。 [단순 존재 보고]
 (한 식당 입구에 소형 픽업트럭 한 대가 있다.)
 b. 门前两侧蹲着两扇石鼓墩儿。 [양태 묘사]
 (문 앞 양측에 두 개의 돌기둥이 웅크리듯 놓여 있다.)

예문 (17a)에서 화자는 식당 입구라는 처소를 스캐닝하여 ‘트럭’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담화에 도입하는 ‘발견’의 관점을 취한다. 여기서 ‘有’는 대상의 구체적인 상태보다 그 존재 유무를 알리는 배경화 전략에 충실하다.

반면, 예문 (17b)는 대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상세 스캐닝’의 결과물이다. 단순히 ‘돌기둥이 있다’고 하지 않고, ‘蹲(웅크리다)’이라는 동사를 통해 사물의 형태적 특징을 생동감 있게 전경화한다. 이는 화자가 대상을 단순한 정보 값이 아닌, 시각적 감상의 대상인 풍경으로 박제하여 청자의 주의를 고착시키려는 전시적 묘사 전략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17b)는 (17a)에 비해 훨씬 높은 시각적 정보량과 주관적 묘사성을 확보하게 된다.

2) 전면적 점유(식별) vs 국소적 배치(묘사)

‘是’가 장소 전체와 대상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등가적 전면 점유(Total Occupancy)를 의미한다면, ‘V着’는 공간 내 특정 지점에서의 국소적 배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상의 정체를 가려내야 하거나 장소와의 일치성

을 강조한다면 ‘是’ 모델(확정적 명명 전략)이 필연적이나, 특정 지점의 안착 상태에 주목한다면 ‘V着’가 선택된다.

- (18) a. 天雨，四面是水，无法出去。 [전체성/식별]
 (비가 와서, 사방이 온통 물이라 나갈 수가 없다.)
 b. 桌上摆着几瓶矿泉水。 [국소 배치/묘사]
 (책상 위에 생수 몇 병이 놓여 있다.)

예문 (18a)의 ‘是’는 처소(四面)와 대상(水)을 동일시하여 공간 전체를 하나의 정체로 규정한다. 여기서 물은 공간의 일부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되며, 이러한 전면적 점유의 속성은 화자에게 시각적 압도감을 형성한다. 이는 통계 분석에서 ‘满(가득)’, ‘全(전부)’ 등의 부사가 ‘是’와 강력하게 공기하며 공간의 ‘경계 일치성’을 강조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예문 (18b)의 ‘V着’는 넓은 책상 공간 중 특정 지점에 생수가 배치된 국소적 양태를 전경화한다. 화자의 시선은 공간 전체를 규정하기보다, ‘摆(진열하다/놓다)’라는 동사를 통해 객체가 안착한 구체적인 방식에 ‘상세 스캐닝’의 초점을 맞춘다. 즉 (18a)가 공간의 정체를 확정하는 라벨링의 결과물이라면, (18b)는 공간 속의 한 점을 포착하여 박제한 묘사(Description)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 ‘V着’의 독자적 영역: 정태적 역동성(Static Dynamism)의 투영

비물질적 현상이나 심리적 가치가 공간화될 때 ‘V着’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유동적 움직임을 상태화하는 ‘着’가 정태적 역동성¹¹⁾을 획득하여 화자의 주관적 시선을 장면에 투영하기 때문이다.

11) 본고에서 제안하는 ‘정태적 역동성(Static Dynamism)’은 Langacker(1987)의 ‘순차적 스캐닝’ 개념을 중국어 존재구문에 적용한 屈承熹(2005)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구문 선택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정립한 용어이다. 이는 외현적으로는 객체가 고착된 정지 상태(Static)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지적으로는 화자의 시선이 시간 축을 따라 상태의 지속을 추적하는 역동성(Dynamism)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V着 구문의 정태적 역동성 구현을 위한 주요 동사군

순위	범주	대표 동사	주요 결합 목적어	화용적 가치
1	현상 지속(C)	下, 飘, 洒	雨, 雪, 阳光, 月光	자연 현상의 장면 박제 및 지속
2	감각 발산(C)	弥漫, 笼罩, 泛	烟味, 雾霭, 红晕, 幽香	무형 성분의 공간 점유 및 삼투
3	시각적 각인(D)	写, 刻, 挂, 透露	愤怒, 疲惫, 沧桑, 希望	추상적 심리의 시각적 실체화
4	빛의 점유(C)	闪, 亮, 燃	光, 泪花, 灯火, 火焰	동적 발광 상태의 정적 고착

- (19) a. 外面飘着白雪。 [현상 지속(C)]
 (밖에 하얀 눈이 흩날리고 있다.)
 b. 整个村庄笼罩着一层薄薄的雾霭。 [감각 발산(C)]
 (산골짜기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다.)
 c. 他的眼神里写着一丝不易察觉的忧伤。 [시각적 각인(D)]
 (그의 눈빛에는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슬픔이 서려 있다.)
 d. 他们眼中闪着泪花。 [빛의 점유(C)]
 (그들의 눈 속에 눈물이 맺혀(반짝이고) 있다.)

예문 (19-a, b)에서 ‘飘’나 ‘笼罩’는 본래 동적인 움직임을 내포하지만, ‘着’와의 결합을 통해 공간 전체를 점유하는 정적인 배경으로 고착된다. 또한 (19-c, d)의 ‘写’나 ‘闪’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추상적 상태나 찰나의 빛이 신체 부위라는 공간에 각인되거나 전경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有’ 구문(예: 眼中有泪)으로 교체할 경우, 심리적 흔적의 입체감이나 지속적인 양태의 뉘앙스는 소멸하고 단순한 감정 소유 여부만 남는다. 즉, ‘V着’은 화자의 주관적 감각을 공간에 투영하여 장면의 정취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화용 장치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존재구문 삼항 체계의 공준은 화자가 공간을 인지하는 세 가지 스캐닝 방식—범위 포괄(Inclusion: 有), 좌표 식별(Identification: 是),

표면 묘사(Description: V着)—이 언어 체계로 고착된 결과이다. 각 구문은 타 구문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의 인지적 층위를 담당함으로써 담화의 입체성을 완성하며, 이는 화자의 주관적 시선이 투영된 ‘인지-화용적 선택의 집합체’임을 증명한다.

V. 결론

본고는 중국어 존재구문의 삼항 체계인 ‘有’, ‘是’, ‘V着’ 구문을 대상으로, 4,500건(유효예문 2,315건)의 대규모 코퍼스 분석을 통해 각 구문의 동사(V), 주어(L), 목적어(NP)의 통사적 빈도와 의미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인지-화용적 관점에서 모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有’ 존재구문은 공간적 ‘포함(Inclusion)과 존재 보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사의 의미가 단순 존재 유무로 수렴됨에 따라, 화자는 장소를 내용을 담는 ‘그릇(L-B, 46.6%)’으로, 대상을 담화에 최초 도입할 ‘비한정 수량 정보(NP-1, 39.4%)’로 규정한다. 이는 화자가 전체 공간을 훑어 미지의 객체를 포착하고 그 실재성을 보고하는 ‘발견(Detection)’의 인지 기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둘째, ‘是’ 존재구문은 공간적 ‘식별(Identification)과 등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사가 지닌 계사적 등치 기능을 바탕으로, 장소를 특정 지점인 ‘상대 좌표(L-C, 43.5%)’로, 대상을 해당 지점에 귀속된 ‘고유 명칭 및 한정 지시물(NP-A, 40.9%)’로 특정한다. 이는 $[L = NP]$ 라는 강력한 등식 관계를 통해 공간 마디에 명확한 식별 값을 부여하는 ‘확정적 명명(Labeling)’ 과정이다.

셋째, ‘V着’ 존재구문은 공간적 ‘묘사(Description)와 장면화’를 담당한다. 동작의 구체적 양태를 지닌 동사가 핵심이 됨에 따라, 장소를 동작의

접촉이 일어나는 ‘물리적 표면(L-A, 46.7%)’으로, 대상을 그 위에 안착한 ‘구체적 기물(NP-A, 51.1%)’로 구체화한다. 특히 비물질적 현상이나 심리 상태가 투영될 때, 유동적 움직임을 상태화하는 ‘着’의 기제를 통해 ‘정태적 역동성(Static Dynamism)’이라는 독자적인 화용 영역을 점유함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존재문 선택이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화자의 ‘인지적 스캐닝(Cognitive Scanning)’방식에 따른 전략적 선택임을 논증하였다. 화자가 공간을 훑는 시선이 ‘범위 포괄’에 머물면 ‘有’(도입 모델)를, ‘특정 좌표’에 고착되면 ‘是’(식별 모델)을, ‘세부 양태’에 집중하면 ‘V着’(묘사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담화 내에서 배경 정보의 저장, 정보의 불확실성 제거, 장면의 전시적 전경화라는 서로 다른 화용적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본고는 실제 코퍼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어 존재구문의 분업 체계를 동사-주어-목적어의 연쇄적 선택 구조로 증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V着’ 구문이 단순한 상태 지속을 넘어 화자의 주관적 시선을 장면에 투영하는 ‘묘사적 존재문’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웹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고전 문헌이나 공식 뉴스 텍스트와의 대조를 통해 문체별 사용 양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존재구문의 미묘한 화용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육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로널드 W. 래너커 저, 나익주 등 역, 《인지문법》, 박이정, 2014.
 남양우, 〈현대중국어 정태존재문의 동사 연구〉, 《중국연구》 제65집, 2015.
 허성도, 《현대 중국어 문법의 이해》, 서울: 사람과책, 2014.

- 陈建民,《现代汉语句型论》,语文出版社,1986.
- 陈庭珍,〈汉语中处所词做主语的存在句〉,《中国语文》第8期,1957.
- 储泽祥,〈汉语存在句的历时性考察〉,《古汉语研究》第4期,1997.
- 范方莲,〈存在句〉,《中国语文》第5期,1963.
- 范晓,《汉语的句子类型》,太原:山西教育出版社,1998.
- 高文成,《英汉存在句认知对比研究》,武汉:武汉大学出版社,2008.
- 黄南松,〈论存在句〉,《汉语学习》第4期,1996.
- 雷涛,〈存在句的范围、构成和分类〉,《中国语文》第4期,1993.
- 李临定,《现代汉语句型》(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2011.
- 李秋菊,《存现句系列的研究》,首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0.
- 陆俭明,《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第五版),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5.
-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1999.
- 孟琮等编,《汉语动词用法词典》,北京:商务印书馆,1999.
- 聂文龙,〈存在和存在句的分类〉,《中国语文》第2期,1989.
- 潘文,《现代汉语存现句研究》,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2003.
- 潘文,《现代汉语存现句的多维研究》,南京师范大学出版社,2006.
- 潘文、延俊荣,〈论现代汉语存现句的语用分类〉,《江苏社会科学》第1期,2007.
- 屈承熹,《汉语认知功能语法》,黑龙江人民出版社,2005.
- 宋玉柱,〈动态存在句〉,《汉语学习》第6期,1982.
- 宋玉柱,〈存现结构及其句法功能〉,《逻辑与语言学习》第1期,1987.
- 宋玉柱,《现代汉语存在句》,语文出版社,2007.
- 王建军,《汉语存在句的历时研究》,天津古籍出版社,2003.
- 吴卸耀,《现代汉语存现句》,上海:学林出版社,2006.
- 杨华春,《现代汉语存在句的认知研究》,浙江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9.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 张斌 主编, 《现代现代描写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10.
- 张先亮、范晓, 《现代汉语存在句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0.
- 张学成, 〈存在句〉, 《语言学年刊》, 1982.
- 张志公, 《汉语语法常识》, 中国青年出版社, 1954.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Langacker, R. W,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evin, Beth,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Corpus resources: 北京语言大学BCC 语料库, (<http://bcc.blcu.edu.cn/>)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agmatic division of labor among the triad of Chinese existential constructions — ‘you(有)’, ‘shi(是)’, and ‘V-zhe(V着)’— through a precise analysis of 4,500 data points from the BCC corpus and to model them from a cognitive-pragmatic perspective. The results indicate that each construction forms a sophisticated cognitive-pragmatic system where the selection of subjects(L) and objects(NP) is sequentially determined by the semantic constraints of the verb(V).

The ‘you’ construction functions as an ‘introductory model’ that reports the presence of entities within a space through summary scanning; the ‘shi’ construction acts as an ‘identification model’ that confirms the identity of a specific coordinate; and the ‘V-zhe’ construction serves as

a ‘description model’ that captures the manner of settlement on a physical surface. In particular, the ‘V-zhe’ construction occupies a unique domain by projecting a subjective perspective through ‘static dynamism,’ which visualizes abstract st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hoice of Chinese existential constructions is an inevitable result of the speaker’s cognitive scanning methods and discourse strategi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providing large-scale numerical evidence for the differences between existential constructions that were previously reliant on intuition and in offering educational guidelines.

Key Words : 중국어 존재구문(Chinese existential constructions), 有·是·V着, 삼항 체계(Triadic system), 인지적 스캐닝(Cognitive scanning), 화용적 분업(Pragmatic division of labor), 정태적 역동성(Static dynamism), 담화 전략(Discourse strategy)